

신규간호사 현장 적응력 높여 이직률 줄이자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추진 ... 법적 배치기준 시급

신규간호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방안

일시 | 2018년 12월 27일 (목)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순례(자유한국당)

주관 | 대한간호협회

후원 | 보건복지부



인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프리셉터 간호사에게 책임만 주어지고,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수진 교수는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2018년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물이며, 신수진 교수가 책임 연구원이다.

가이드라인은 간호교육팀 설치 및 운영, 간호교육팀 조직체계, 신규간호사 교육, 교육담당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이 중 3개월 이상 프리셉터가 함께 하도록 했다. 프리셉터 간호사의 경우 신규간호사와 근무일정을 일치시켜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키는 동안 업무를 줄여주도록 했다.

신수진 교수는 "개발된 가이드라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교육전담부서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의료질 평가 지원금제도에 '간호교육지원' 영역 및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신규간호사 조직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관리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신규간호사가 겪는 현실충격= 신수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규간호사들이 겪는 현실충격, 프리셉터의 고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2면에 계속)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김순례 국회의원 주최 ... 대한간호협회 주관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전담간호사 재정지원 기준 등 마련돼야

2019년 올해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됐다. 이는 신규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에 잘 적응해 이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해줄 교육전담부서 설치 및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주장이 반영된 조치다.

신규간호사 이직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방안' 주제로 지난 12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보건복지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김순례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무의 어려움, 대학교육과 임상현장의 격차는 신규간호사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본래 자신의 업무에 교육까지 떠안으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해 신규간호사가 제대로 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임상현장에 투입되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2019년도 예산으로 국공

립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지원비를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하지만 신규간호사 교육문제에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재정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과 확대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례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정책의 성공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제도 마련과 예산확보를 위해 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공립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2019년 예산이 확보됐고, 시뮬레이션 실습 강화 예산도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간호사 확보를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 문제를 정책 어젠다로 선정해 실행해왔다"면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추사를 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규간호사 1년 이내 이직률이 38%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이는 그만큼 간호현장에서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를 갖춰 간호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가이드라인= 이날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이 38.1%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신규간호사의 임상현장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이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환자간호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이 짧고, 교육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

간호법 제정 등 8대 정책과제 실현에 매진

신년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지난 한 해 간호계와 대한간호협회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간호계는 지난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큰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단체들과 상호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했고,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

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범주에 27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갖고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중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는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는 시스템, 간호사 노동가치에 합당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수가가 간호사를 위해 직접 쓰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특히 간호 관련 정책과 법·제도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루는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

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광수, 남인순, 윤종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묶여 고용불안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방문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비용대비 효용가치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지난해 8월 발족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복지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 대표 등 63명이 참석했으며,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귀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에

서 중점과제로 제시된 간호법 제정 그리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케어 등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선포식에 이어 아네트 케네디 국제간호협회(ICN) 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Nursing Now Korea)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넬싱 나우 한국위원회는 보편적 건강보장에서의 간호사 핵심역할 수행, 간호사의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 참여,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 인정 및 지위 향상이라는 미션 아래 세부 활동목표 달성을 위해 땀을 흘릴 것입니다.

아울러 넬싱 나우 캠페인의 비전에서 제시한 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보여준 살아 있는 증거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새해에는 간호정책 선포식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습니다'와 함께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